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이민정책이 경제정책으로

- 데이터로 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국내 거주 외국인은 단순히 '들어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득, 소비, 투자 등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구성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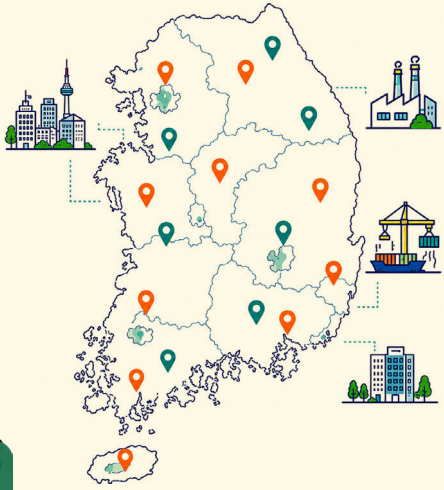


외국인의 규모보다는
경제 영역별로 어떤 패턴으로 활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왜 지금 이민을 경제정책으로 봐야 할까?

- 저출산과 고령화로 한국의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민정책은
노동력, 소비, 지역경제,
재정까지 연결되는
경제정책입니다.





2024년 말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204.2만명

2023년
전체 외국인주민**
247.8만명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127개 지역

외국인은 더 이상 주변 인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안에 머무는 생활 인구입니다.

이민은 이제 "관리"가 아니라 미래 경제를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_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의 장기체류외국인(체류기간 90일 초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을 말함.
**외국인주민_ 행정안전부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의 외국인주민을 말하며, ①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90일 초과 체류), ②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③외국인주민자녀를 포함함.
***집중거주지역_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이거나 총인구 대비 5% 이상인 시·군·구를 말함.

외국인은 하나의 집단일까?

- 체류유형에 따라 삶도, 경제활동도, 지역분포도 다릅니다.

외국인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는
서로 다른 생활 기반과 경제활동 방식이 있습니다.

체류유형별 특성*



외국인근로자
생산·제조 중심



결혼이민자
가족·생활 기반,
10년 이상 장기체류 비중 높음





유학생
학업·미래 취업



외국국적동포
장기체류·지역 정착,
수도권 집중도 높음



기타외국인
다양한 체류 목적으로
인한 높은 이질성

외국인은 하나의 집단이 아닙니다.

이민정책은 "외국인 규모"가 아니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체류유형별 특성_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기타외국인 등 5개 체류유형으로 구분함.

외국인은 한국경제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 이미 한국 노동시장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한국 노동시장 안에서
중요한 생산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인력 수요가
큰 분야에서 외국인 취업자의 비중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24년 국내 거주
외국인 취업자

약 101만 명

외국인 고용률

64.7%

경제활동참가율

68.6%
(내국인 수준 근접)

외국인 취업자 중
광·제조업 종사 비중

45.6%
(인력난 핵심 역할)

외국인은 한국경제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경제 안에서 활동하는 생산자입니다.

*외국인은 한국경제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_ 하단 데이터는 법무부·통계청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2024년) 기준임.

외국인의 소비는 한국경제 안에서 어떻게 흐를까?

- 외국인도 지역 상권 안에서 소비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소득을 얻고,
다시 한국 안에서 소비합니다.

마트, 식당, 교통, 통신, 온라인 결제까지
외국인의 소비는 지역 상권과
생활경제 안에서 움직입니다.



소득현황*

외국인 근로자수
61.1 만 명

외국인 1인당 평균 연봉
3,298만 원

근로소득 신고세액
약 1.2 조 원

소비현황**

1인당 카드 이용액
약 496 만 원

내국인 대비 소비수준
69.4%

신용 : 체크
40:60

외국인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지역 상권 안에서 소득과 소비 활동을 하는 **생활경제 주체**입니다.

*소득현황_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23년) 중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 완료한 외국인근로자 기준임.
**소비현황_ 신한카드 제공 신용·체크카드 사용정보(2024년) 기준임. 신한카드사 시장점유율을 역산하고, 여신금융협회 월별 이용실적에 기반한 월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외국인 증가는 노동시장과 지역경제, 그리고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 다양한 경제적 활동의 흐름은 경제 영향으로 이어집니다.

지역 내 외국인주민이 늘어나면 일부 산업에서는 생산 증가와 연결됩니다.

또 외국인은 소득세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 증가 → 내국인 고용에 부정적 영향 ↓
- 결혼이민자 증가 → 소비 지역경제 활성화 경로 ↑
- 외국국적동포 증가 → 수도권 임금 상승 ↑

지역경제



외국인주민 1% 증가	광·제조업	약 172억 원 증가
	농림·어업	약 14억 원 증가
외국인근로자 1% 증가	광·제조업	약 71억 원 증가
	농림·어업	약 4.3억 원 증가
외국국적동포 증가	건설업	생산 기여

지방정부 재정



외국인근로자 1% 증가	세출 및 세입 0.15~0.20% 감소
결혼이민자 증가	세출 및 세입 확대 (가족 서비스 수요 증대)
유학생 증가	세출 및 세입 증가 (지역소비 및 생활인프라 증가)

지역경제에서 외국인은 노동력인 동시에
생산과 재정 흐름에 연결되는 경제 변수입니다.

*재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_ 5개 체류유형(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타외국인) 전체를 분석한 결과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만 제시하였음.

이민 확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 이민정책의 핵심은 '유입'보다 '지속가능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얼마나 들어오는가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정착하고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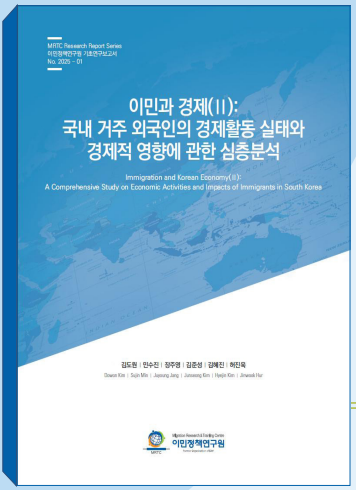
외국인이 한국경제 안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기여하려면
정착, 훈련, 일자리, 지역사회 통합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민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자세한 연구내용은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mrtc.re.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발간물 ➔ 연구보고서



No.2025-01

이민정책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이민과 경제(Ⅱ):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심층분석

김도원 | 민수진 | 장주영 | 김준성 | 김혜진 | 허진욱



이민정책연구원
https://www.mrtc.re.kr/data/01.php

최신연구자료 열람 | 정책자료 확인 | 통계자료 이용 | 연구성과 검색

카드뉴스 기획 및 제작 기획관리팀(02-3788-8020, 8012)